

## 근세복식에 나타난 장식의 변화양상과 음·양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장식 분류

송부희 · 박숙현<sup>†</sup>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 Classification of Clothing Ornaments by Yin and Yang's Traits and Changes of Details from 16th to 18th Century

Boo-hee Song · Sook-hyun Park<sup>†</sup>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sung University  
(2006. 9. 22.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find out the dominant clothing ornaments in Europe in the 16th, 17th and 18th centuries, 2) to examine the changes of such clothing details as neckline and collar, sleeve and stomacher from 16th to 18th century 3) and to classify the ornaments of these 3 centuries according to Yin and Yang's traits. An analysis was conducted of 405 pieces of art out of 10 books of costume history. Of these pieces, 121 were from the Renaissance era, 107 were Baroque and 177 were Rococo. The analysis found that the distinctive ornaments in 16th century were ruff, slash, chain and girdle decoration. The distinctive ornaments of Baroque period were tassel, fringe, loop and binding. The Rococo period were distinguished by falbala, sash belt and fabric necklace. With regard to the changes over the 3 centuries necklines changed from high to lower. Sleeves became shorter. Stomacher which was long and sharp became wider and shorter. As to the Yin and Yang's traits there was also an evolution. Renaissance costume with Yang's style was decorated mostly Yang influenced ornaments. Baroque clothing was a mixed of Yin and Yang, as were the ornaments. By Rococo both clothing and ornaments reflected Yin's traits.

**Key words:** Clothing ornaments, Yin and Yang's traits, Stomacher, Falbala, Sash belt; 의복장식, 음과 양의 특성, 스토마커, 팔발라, 새시벨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계생산에 적합한 형태의 텁색으로 탄생한 단순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shpark@star.ks.ac.kr

이 논문은 2006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하고 획일적이던 모던 스타일은 후기 자본주의 시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생산이 중시되면서 장식적 스타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디자인에 있어서 복고·퓨전·절충적 스타일의 유행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복식 디자인은 복잡다단하며 장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삶의 의미를 더 중요한 원리로 간주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은 노-매치 믹스(no-match Mix)현상, 성의 양성화, 해체주의 경향 등 다양

하고 혼합된 복식 스타일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장식을 사용하거나 과다한 장식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국적인 문양, 다양한 색채, 새로운 신소재 등의 패션 장식요소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다.

모든 조형물은 음과 양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Bell Northrup은 “An Approach to the Problem of Costume and Personality”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논문에 음과 양의 개념을 패션에 응용하여 조형요소별 음적·양적 특성을 분류하였다(Rasband, 2002). 이러한 개념을 근세복식에 대입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식사상 가장 다양한 장식이 사용되었던 근세시대의 장식을 분류하여 첫째, 시대별 특징적 장식을 살펴보고 둘째, 시대 흐름에 따른 구조적 장식의 형태변화를 고찰하며 셋째, Northrup의 음·양의 조형적 특성을 근거로 장식을 음적 장식과 양적 장식으로 분류하여 각 시대별 의복이미지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시대 여성복을 중심으로 문헌연구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국·내외 서양복식사 서적 10권<표 1>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121점, 바로크 107점, 로코코 177점의 사진에 나타난 장식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그 시대의 특징적인 장식을 살펴보았다. 음·양에 따른 장식분류는 Bell Northrup의 음·양의 조형적 특성을 근거로 음적·양적 장식으로 분류하여 의복의 전체 이미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1> 문헌에 따른 시대별 사진자료 분류

저자	문헌명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15	12	18
조진애 외 2인	서양복식의 역사	35	26	49
이정옥	서양복식사	5	6	7
백영자 외 1인	서양의 복식문화	2	3	5
조진애	그림에서 표현된 서양복식	25	31	59
J. Black 외 1인	세계패션사	5	3	4
Franc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22	13	13
Payne 외 2인	The History of Costume	6	9	10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3	2	7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3	2	5

## II. 이론적 배경

### 1. 장식의 개념 및 종류

#### 1) 장식의 개념

장식이란 건축물에서 ‘꾸밈’ 또는 ‘치장’을 목적으로 순수한 구조적 형태에 덧붙이는 요소라 정의되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2). 의복에서 장식의 개념을 살펴보면 ‘무엇을 치장한다’는 뜻으로 라틴어의 ‘ornatus’에서 유래한 ‘ornament’가 장식의 용어로서 ‘장신구’ 또는 ‘장식무늬’의 의미로 쓰여 진다. 즉 장식한다는 것은 대상을 매력적이게 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Horn & Gurel, 1981/1995). 의복에서 장식의 형태는 실용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귀족계급의 부와 권력의 과시를 위해 이용되어졌으며, 장식을 함으로써 미를 통한 행복한 심리적 감정을 느끼게 한다. 또한 미적인 표현으로 더욱 의복의 가치와 개성을 높여준다.

#### 2) 장식의 종류

장식은 의복의 구성상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디자인의 미적 표현을 돋기 위하여 변화시키거나 장식품을 덧붙여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이은영, 2003). 이것을 디테일과 트리밍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디테일이란 옷을 만드는 봉제과정에서 그 옷을 장식할 목적으로 이용된 ‘세부장식’을 말한다(성수광외, 1999). 그리고 트리밍은 이미 만들어진 장식품 혹은 그 외의 다른 재료를 만들어 붙이는 것으로 옷을 장식할 목적으로 만들어 달거나, 만들어져 있는 장식을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곳에 붙이는 것(유송옥,

1995)을 말하는데 대체로 개성적인 의복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장식의 종류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은영(2003)은 장식적 디자인의 유형을 장식적 디테일, 장식적 구성, 표면의 장식, 트리밍으로 분류하였다. 이순홍(2003)은 구조적 장식과 응용장식으로 분류하였는데 구조적 장식에는 네크라인, 칼라, 소매, 커프스, 단추, 포켓, 스토마커 등으로 분류하였고, 응용장식으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직선적 장식으로 슬릿, 태슬, 프린지, 파이핑 등을 분류하고 곡선적 장식으로 페플럼, 레이스, 프릴, 러플 등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혼합적 장식으로 자수+밴드 트리밍, 프릴+바인딩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용어들은 서로 중복 되거나 혼용되어져 사용하고 있다.

## 2. 근세시대 복식의 특징

근세시대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시대를 말한다. 근세시대의 전기는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연구하고 교회와 봉건제도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난 시기이다. 십자군 운동 이후 지중해를 무대로 세계 상업이 활발하여 여러 나라간의 독특한 문물교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동방의 새로운 문물들이 유럽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또한 신세계인 남북 아메리카와의 무역이 발전하면서 부유한 상인계층의 신흥귀족계급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재력을 바탕으로 귀족계급의 생활방식을 모방하였으며,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신분과 위엄을 마음껏 과시하였다. 즉 상공업의 발달은 시민계급을 대두시켜 귀족 및 왕족과의 대결구조를 이루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시대의 복식은 신분과 물질적 풍요의 수단이 되어 호화찬란하고 위엄이 넘치는 새로운 모드의 특징적인 스타일이 되었다.

새로운 풍요와 함께 직물산업은 생산체제 뿐만 아니라 기술도 크게 발달되어 염색 가공기술의 과학적인 진보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종류의 레이스가 개발되었으며, 금·은색 실을 이용한 자수법도 연구되어 널리 애용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직물들은 르네상스의상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차하순, 1984). 르네상스 인들의 독특한 모드는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바로크시대의 유럽정세는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독일지방의 종교분쟁이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어 유럽 전역은 전쟁에

휩말리게 되었다. 그래서 종래의 인위적이고 호화로운 복장은 움직이기 불편하고 그 비용도 엄청나 격렬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맞지 않았으므로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네덜란드복식이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종래의 르네상스 풍과는 성격이 상반된 시민 풍으로서 합리성과 실용성을 갖춘 활동하기 편리한 새로운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백영자, 유효순, 2003).

네덜란드와 함께 프랑스 또한 국제적인 상업도시의 발전, 우세한 국민, 광대한 국토 등 많은 호조건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였다. 급속도로 발전한 프랑스는 풍부한 경제력이 복식문화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제적 배경은 호화로운 궁정생활의 귀족문화를 변성시켜 유럽 전역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였다. 프랑스의 모드는 왕실과 귀족계급의 매너와 형식을 중히 여겼으며, 지나친 장식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다. 이러한 압박감에 실증이 났을 때 정신적으로는 향락주의가 만연하여 새로운 사회풍조에 형성된 복식모드가 서유럽을 크게 지배하게 되었다. 이전과 같은 권력 표시를 위한 호화로움도 아니고 정연한 규칙도 아닌 환상적이고 정겨움이 넘치는 복식모드로서 매혹이 넘쳐흘렀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 중엽부터 현저해졌는데 이런바 로코코 양식이었다. 로코코 양식은 경쾌히 춤을 추는 듯한 감각의 우아하고 여성적인 귀족취미 양식으로서 프랑스의 살롱을 중심으로 번져나가 각지에서 독보적으로 발전하였다(정홍숙, 2005).

살롱은 16세기 중엽에 몇 개의 살롱문호가 개방되면서 부유한 시민들의 쾌적한 사교장으로서 변형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남여가 정치, 경제, 문학, 예술 등 여러 가지 화제를 즐겁게 토론하였다. 프랑스인들은 이전시대인 바로크 왕실의 권력, 압박, 에티켓의 거북스러움 등으로 인해 숨이 막혔으므로 이곳에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찾아 모이게 된 것이다. 형식적인 허세 없이 부드럽고 섬세한 분위기의 사교장내에서 부인들의 복장은 실내장식역할이 되었는데 꽃, 리본, 레이스, 팔발라, 꽃바구니 등의 유연한 모티브가 기묘하게 어우러져 치마는 18세기까지의 복식사상 최대로 넓혀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장식도 사상 최고로 높아져 모두가 하나의 예술품이 되었다(손세호, 1999).

## 3. 음·양론에 의한 조형적 특성

음·양론은 중국을 중심으로 생겨난 고대 철학사상으로서 모든 자연현상을 음과 양으로 되어있다고 보

&lt;표 2&gt; 음·양론에 의한 디자인 특성

특 성	디자인의 특성
음적 특성	후퇴, 수용적인, 곡선, 끊어진 선, 곡선의 형과 실루엣, 작은 크기의 패턴, 부드럽고 밝은 색, 유연한 섬유, 가벼운, 부드러운 텍스처, 작고 약하며 미묘한 대비, 언 테일러드
양적 특성	전진적, 독단적인, 직선, 강하고 끊어지지 않는 선, 각진 형태와 실루엣, 큰 크기의 패턴, 굵고 어두운색, 단단한 섬유, 무거운, 거친 텍스처, 크고 강하며 뚜렷한 대비, 테일러드

&lt;표 3&gt; 조형요소별 음적·양적 특성

조형요소	음적 특성	양적 특성
선	곡선형, 등근형, 끊어졌거나 교차됨	직선형, 각진 형, 절제된 곡선, 길고 끊어지지 않는 선
실루엣	모래시계 형이나 곡선적인 실루엣	역삼각형이나 직선적인 실루엣
색상	밝다, 명암차가 적다, 패스텔 톤, 시원함	어둡다, 명암차가 크다, 우중충한 바탕에 강렬한 빛, 따뜻함
직물	유연함, 매끄러움, 투명함, 고운, 가벼움, 부드러움, 비침	단단함, 거칠, 풍부함, 빛남, 호사스러움, 불투명, 무거움
문양	작은 크기, 등근형, 체크무늬, 작은 꽃무늬	커다란 크기, 스트라이프 무늬, 격자무늬

는 개념이다(김봉준, 1995). 음과 양은 어두움과 밝음, 달과 해, 여성과 남성, 약함과 강함, 숨김과 드러냄 등 서로 상호대립(相互對立), 상호의존(相互依存), 상호 소장(相互消長), 상호전화(相互轉化) 등의 4가지를 기본으로 나타낸 것이다(윤희, 2004). 이 개념은 우월과 비우월성, 진보와 퇴보를 설명하며 우리나라 태극무늬가 상징하듯 양은 태양의 힘, 위엄, 우월, 강인함, 진보 등의 남성적인 강인함을 의미한다. 음은 달빛이 주는 온화함, 섬세함, 비 우월, 퇴보, 수용 등의 특색을 나타내며 점잖음과 부드러움을 의미한다(이정미, 2000).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의상디자인을 강의하던 Bell Northrup은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터득한 동양의 음·양(Yin`Yang)특성을 “An Approach to the Problem of Costume and Personality”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논문에서 복식디자인에 적용하기 적합한 음과 양의 개념을 패션에 응용하여 조형요소별 음적·양적특성으로 분류하였다(Rasband, 2002). 그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에도 서로 상반되는 성격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이런 특징을 개성 분류에 적용하였다. 즉, 자연에는 참나무, 사자, 독수리 같은 힘과 위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수양버들, 사슴, 양 등과 같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친밀한 느낌을 주는 것도 있다. 꽃 중에서도 해바라기, 다알리아, 백합과 같이 강렬한 힘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초롱꽃, 벚꽃, 안개꽃과 같이 부드럽고 여성적인 것이 있다. 이러한 자연생물 중에서 앞의 것을 양의 특징으로 뒤의 것을 음의 특징으로 보았다(이은영, 2003).

Forsythe et al.(1981)은 Influence of Clothing Attributes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Characteristics에서 의복디자인 특성이 착용자의 인성특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Northrup이 제시한 음양론에 기초를 하여 분류하였다. 그밖에도 Mcjumsey(1973), Horn and Gurel(1981)도 음양론에 기초하여 개성 분류를 시도하였다. 정인희, 이은영(1992)의 의복이미지를 유형화한 연구에 의하면 의복이미지의 가장 큰 분류는 남성적이고 단순한 이미지-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음양론을 이용한 Northrup의 개성 분류 기준이 의복이미지 분류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Northrup은 음양론에 의한 디자인 특성을 <표 2>와 같이 분류하였으며, 조형요소별 음적·양적 특성은 <표 3>과 같이 분류하였다.

### III. 결과 및 논의

#### 1. 시대별 특징적 장식

의복의 장식은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하여 시대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시대별 장식을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대별 특징적 장식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 르네상스시대

외형의 엄격한 위엄과 전체적인 조화미는 르네상스복식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복식을 더욱 돋보이게 구성하기 위하여 특징지은 특별한 장식으로 거들장식, 체인, 보석·단추, 에酹렛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lt;표 4&gt; 시대별 특징적 장식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장식명칭	사진수 (%)	장식명칭	사진수 (%)	장식명칭	사진수 (%)
슬래쉬	12(10)	루프	7( 7)	팔발라	11( 6.2)
에漯렛	12(10)	태슬	4( 4)	새시벨트	15( 8.4)
러프	15(12.3)	프린지	7( 7)	로젯	14( 7.9)
체인장식	5( 4.1)	보더장식	13(12)	체인목걸이	21(11.8)
보석·단추	10( 8.2)	에이프런	4( 4)	앙가장뜨	15( 8.4)
자수	5( 4.1)	자수	9( 8)	개더	17( 9.6)
거들장식	15(12.3)	리본장식	12(11)	프릴, 러플	16( 9)
레이스	10( 8.2)	레이스	25(23)	루시	5( 2.8)
페프	10( 8.2)	트레인	10( 9)	레이스	12( 6.7)
파틀렛	3( 2.4)	페플럼	3( 3)	자수	9( 5)
에글릿	5( 4.1)			보우	12( 6.7)
				꽃장식	8( 4.5)
기타장식 (스칼럽, 아플리케, 모피, 거울망, 베클, 브레이드, 컷워크)	19(15.7)	기타장식 (탭, 아플리케, 스칼럽, 퍼슈)	13(12)	기타장식 (스칼럽, 아플리케, 퀼팅, 드론워크, 와토주름, 나비매듭)	22(12.4)
합 계	121(99.6)	합 계	107(100)	합 계	177(99.4)

있다.

거들장식이란 여성들의 로브 허리부분에 길게 늘어뜨려 착용한 줄을 말한다. 가늘게 조인 허리에 예각으로 내려온 스토마커 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값비싼 보석을 엮어 장식하거나 금속 체인형태를 하여 길게 늘어뜨렸다(조진애, 2002). 여기에 보석이나 실크로 만든 주머니를 달기도 하였는데 화려한 보석이나 체인목걸이와 함께 르네상스 여성들의 옷에 잘 조화를 이루어 귀품 있는 요소가 되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 화려한 보석·단추장식을 들 수 있다. 다이아몬드나 보석들이 금으로 결합된 형태의 단추가 나타났고(박샛별, 1999), 아주 고급스러운 천들이 온통 보석으로 장식되어지기도 하였다. 신분과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 큰 목걸이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손가락에는 몇 개씩 반지를 착용하였으며(블랙, 갈란트, 1980/2005) 특히 보석이 박힌 목걸이, 금으로 만든 체인형태의 목걸이를 한꺼번에 여러 개씩 겹쳐서 착용하는 것을 즐겼다. 훌륭한 보석·단추장식은 초기에는 왕과 왕비, 궁중신하들의 특권이 되었다. 신하들이 엘리자베스여왕에게 진주가 덧붙여진 48개의 금단추로 장식된 장갑을 선물한 일화가 있으며(Lester & Oerke, 2004) 여왕의 드레스에는 엄청난 보석과 진주 등으로 장식하여 권력과 위엄을 과시한 것을 엿볼



&lt;그림 1&gt; 러프칼라, 체인목걸이, 거들장식

수 있다. <그림 1>은 르네상스시대의 장식을 대표하는 러프칼라, 체인목걸이, 길게 늘어뜨린 거들장식, 화려한 보석장식 등을 보여주는 복식이다. 이 중에서도 체인형태는 오늘날에 고전적인 스타일 보다 평크나 스키니헤드 같은 반항적인 스타일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르네상스 스타일에 나타난 것은 특이할 만하다.

박력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심을 넣어 과다하게 부풀린 소매의 모습은 르네상스인들의 대표적인 옷이라 할 수 있다. 사치와 허영을 좋아한 이들은 옷 한

별에 여러 개의 소매로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였는데 (Cosgrave, 2000) 소매와 몸 판의 연결부위를 가리기 위하여 장식하게 된 것이 에漯렛이다. 에漯렛에는 여성의 스커트에는 벤지지 않았으나 엄청나게 유행을 한 슬래쉬 장식을 많이 하였는데, 슬래쉬 사이의 에글릿으로 입체적인 요철감을 형성하여 과장된 어깨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였다(조진애 외, 2001).

## 2) 바로크시대

여성적인 취향에서 장식과잉으로 인한 복잡함 때문에 비록 배치가 세련된 감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다른 시대와 달리 독특함을 엿볼 수 있는 바로크 인들의 특징적인 장식으로는 루프(loop), 태슬(tassel), 프린지(fringe), 보더(border)장식, 텁(tab)장식, 등이 있다.

루프장식은 루이14세 때 자수나 브로케이드의 사용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단순히 실크만 사용하도록 권장 되었는데, 프랑스인들은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천으로 만들어진 루프를 착안하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유행을 시켰다. 색색의 비단루프로 다발장식, 장미장식, 둥근 장식 등의 다양한 형태로 여기저기에 장식하여 꽃이 의상에 가득 피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프린지와 태슬은 바로크의 주된 장식요소로 들 수 있다. 프린지는 소재의 날실을 묶어서 방울처럼 만든 것을 의미하며, 태슬은 끝을 묶거나 엮는 방법이 좀 더 다양하게 발전된 기법을 말한다(Bigelow, 1970). 바로크 여성의 스커트에 다양한 색상으로 이루어진 작은 루프를 만들어 장미꽃 모양이나 넝쿨모양, 작은 잎 모양 등으로 번갈아가며 프린지장식을 하였고 스커트의 앞자락에 보풀거리는 실크매듭과 함께 태슬을 매달기도 하였으며, 밑단에는 코드를 끼어 커튼처럼 잡아당겨 장식하기도 하였다(Hart & North, 1998).

보더장식은 여성들의 가운장식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가운전체 혹은 두 세손가락 길이의 폭넓은 장식 띠를 몇 개씩 달고 다채로운 색상의 프린지로 스커트가두리 등을 장식하였다(조진애, 2002). 또한 질 좋은 직물에 넓은 레이스나 브레이드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선을 두르는 것을 즐겼다. <그림 2>는 가운전체에 보더 장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복식이다.

텝(Tab)이란 패션용어사전(라사라고육개발원, 2002)에서 일반적으로 장식부분에 붙여진 드림모양을 말하

는데 ‘드리운 장식’ ‘손잡이 끈’ 등의 뜻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바로크여성들의 드레스는 코르셋이나 보디스를 입음으로써 허리선이 더욱 가늘고 길게 보일 수 있었는데 보디스는 ‘탭’이라 불렸던 부분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겼으며 뒤에서 끈으로 꼭 졸라매었다(블랙, 갈란트, 1980/2005). 오늘날에는 앞트임 디자인에 많이 장식되어지고 있으며 벨트 앞부분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 3) 로코코시대

이시대 여성들의 대표적인 옷은 로브로서 복식사상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특징을 나타내는 장식요소는 팔벌라(falbals), 새시벨트(sash belt), 리본(ribbon), 꽃(flower), 직물로 만든 목걸이, 로제(rosette) 등을 들 수 있다.

팔벌라는 호화로운 로브의 스토마커, 스커트 트임의 가장자리, 패티코트 드레스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된 형겼으로 만든 트리밍이다. 곡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면서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표출하였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로브 아래 프랑세즈의 주된 장식요소로서 그 우아함과 화려함은 의상자체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들었다.

또 다른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여성들의 품목으로 새시벨트를 들 수 있다. 새시벨트는 부드러운 천을 주름지게 하여 허리에 맨 띠를 말하는데(정홍숙, 2005), 화려하게 구성된 로브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꼭 끼는 허리를 강조하여 뒤쪽에서 리본모양으로 묶어 장식하였다. 그러나 여자코트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르네고뜨 위에는 태슬 장식이 있는 새시벨트를 착용하였는데 실



<그림 2> 보더장식



<그림 3> 검정색 새시벨트

용적인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주로 모직물을 사용하였다.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로브위에 잘 조화되는 밝은 색상의 새시벨트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때로는 무늬나 장식이 없는 검은 색상을 허리에 매는 것도 유행하였다(블래, 갈란트, 1980/2005). <그림 3>은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로브위에 검은 색상의 부드러운 직물로 뒤에서 리본으로 묶어 장식한 새시벨트이다.

직물 목걸이는 데꼴테 네크라인으로 허전한 목 부위에 꼭 맞게 착용하거나 길게 늘어뜨려 여성스러움을 더욱 강조하였다. 꽃을 엮거나 부드러운 직물로 리본모양, 루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로브 아라 프랑세즈에는 꼭 끼게 착용하여 화려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고, 가슴이 많이 파인 르뎅고뜨 위에는 훌리내리게 장식하여 한층 더 품위 있는 복장을 연출하였다. <그림 4>는 여러 형태의 직물 목걸이를 보여주고 있다.

팔발라와 함께 로브의 장식요소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장미꽃의 로젯장식이다. 로브의 끝자락을 커튼처럼 접아당겨 태슬과 함께 장식하거나 군데군데 장미꽃을 다발로 엮어서 장식하기도 하였다. 또한 거대한 머리에 다발로 장식하여 마치 화원을 연상케 하였다. 이밖에도 레이스나 얇은 천으로 프릴, 플라운스, 러플, 루시 등의 장식기법으로 바디스, 소매 또는 정교하게 펼쳐진 스커트에 화려하게 장식하였는데, 프릴이나 주름등이 많은 옷일수록 여성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귀품 있는 옷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각 시대별 특징적인 장식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그림 4> 다양한 직물 목걸이

## 2. 구조적 장식의 형태변화

이순홍(2003)은 구조적 장식을 네크라인, 칼라, 소매, 커프스처럼 복식의 일부분으로서 기능성과 장식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장식기법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순홍의 장식분류를 근거로 하여 근세시대 3세기 동안 구조적 장식은 서로 연결되면서 서서히 변화됨을 알 수 있었던 칼라 및 네크라인, 소매, 스토마커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칼라 및 네크라인

3세기에 걸친 칼라 및 네크라인의 형태변화는 르네상스시대 러프에 의해 목둘레를 대부분 감싸던 형태가 바로크시대에 낮아지면서 목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로코코시대에 데콜테 네크라인으로 변화 되거나 라펠이 장식되어 다양한 칼라로 발전되었다.

르네상스초기의 네크라인은 타원형과 네모형의 낮은 목둘레에 데콜타쥬(decolttage)되어 목과 가슴 윗부분을 파틀렛(partlet)이라는 가리개를 하였으며, 점차 목둘레가 높아지면서 슈미즈를 장식하던 러플을 끈으로 오므려서 잔주름지게 한 것이 러프칼라로 변모되었다. 초기의 러프는 소형스타일로 슈미즈와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형태였으나(Norris, 1999) 로브의 앞트임과 데콜테가 막히고 칼라를 따로 만들어 붙이는 러프칼라가 유행되면서 러프의 크기는 스커트의 크기와 비례해서 확대되었다. 풀을 먹여 뺏뻣하고 S자 모양처럼 납작한 형태의 주름으로 크게 확대되었다(Cosgrave, 2000) 가장 큰 크기의 것이 등장하면서 최성황기를 이루었으나 이것을 고비로 어깨를 덮는 간소한 형태인 메디치칼라로 변화되었다. 바로크시대에 메디치칼라는 점점 누운 형태로 발전되었는데, 밴드(bands), 폴링밴드(falling bands), 휘스크(wisks)등으로 불려졌다(Lester & Oerke, 2004). 로코코시대에는 바로크 후기 누운 형태의 칼라가 점점 목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U자 모양의 데콜테 네크라인으로 변화되었다. 깊게 파인 데콜타쥬에는 목에 레이스나 리본 끈으로 된 러플을 즐겨 착용하였다(빈막스, 1985/1998). 또한 칼라가 접하면서 라펠이 생겨

<표 5> 각 시대별 특징적인 장식

특징적인 장식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체인, 거들장식, 에탈렛, 보석 · 단추, 슬래쉬, 러프	루프, 태슬, 프린지, 보더 장식, 텁장식	팔발라, 새시벨트, 로젯, 직물 목걸이, 앙가장뜨

나기 시작하여 영국식 남자복을 모방한 르뎅고뜨에는 넓은 라펠이 장식되었고, 점점 솔칼라, 톨칼라 등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그림 5>는 네크라인 및 칼라의 변천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2) 소매

3세기에 걸친 소매 형태의 변화는 르네상스시대의 어깨부분을 강조하고 손목부위가 좁은 긴소매의 형태가 바ロック시대에 어깨부분의 과장이 감소되면서 길이가 점차 짧아지기 시작하여 로코코시대에 어깨와 상완부위는 타이트하고 소매 끝은 과장되면서 짧은 길이로 변화되었다.

르네상스시대에는 박력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하여 퍼프나 패드를 이용하여 어깨부위를 크게 부풀렸다. 소매 형태가 좁고 긴 것, 슬릿(slit)이 있어 기묘한 장식으로 어깨 부위를 강조한 것, 넓고 길어 땅에까지 끌리는 것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유행한 소매는 퍼프슬리브, 레그 오브 머튼슬리브, 행잉슬리브 등이 있다. 바ロック시대에 접어들면서 르네상스시대의 과장되었던 어깨는 조금씩 축소되고 가늘고 긴 형태의 소매, 소매 중간 중간을 묶어서 장식한 소매, 레이스나 던 백 커프스가 달리는 것 등 후기에는 소

매길이가 짧아지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타이트슬리브, 폴 케이프슬리브, 마메룩슬리브, 비라고슬리브 등의 종류가 있으며, 후기에는 사봇슬리브나 앙가장뜨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로코코시대에는 바로크 후기에 나타난 필꿈치까지의 길이는 변함이 없었으나 점차 통이 좁아지는 형태에 레이스, 프릴, 러플 등으로 여성스런 우아함을 주었다. 대표적인 소매는 바로크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사봇슬리브, 앙가장뜨의 우아한 주름이 펴지는 파고다슬리브로 바ロック시대보다 훨씬 화려하고 우아한 형태로 유행하였다. <그림 6>은 소매의 변천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3) 스토마커

스토마커는 가슴과 아랫배에 걸쳐 앞 중심에 덧대는 역삼각형의 장식물이다. 3세기에 걸친 스토마커의 변화는 르네상스시대에 역삼각형의 끝이 길고 뾰족한 형태로 시작하여 바ロック시대에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끝부분이 길게 드리워진 혀 모양으로 변화되었다가 로코코시대에 길이는 짧아지고 아래부분이 약간 둑글려진 사다리꼴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르네상스시대의 스토마커는 목둘레부분이 직선형태의 스웨어네크라인으로 데콜테되어 파틀렛으로 가

《르네상스시대》

《바ロック시대》

《로코코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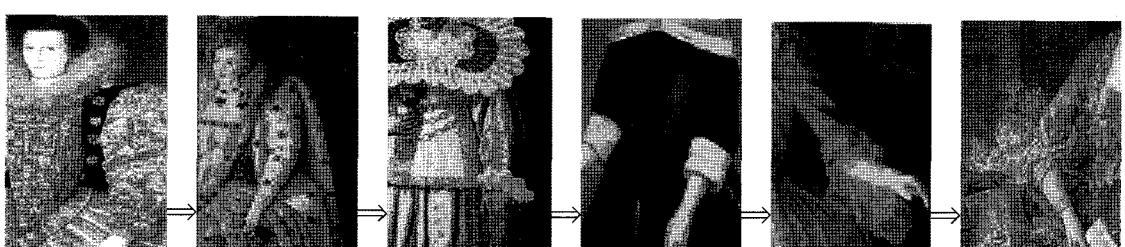


<그림 5> 네크라인 및 칼라의 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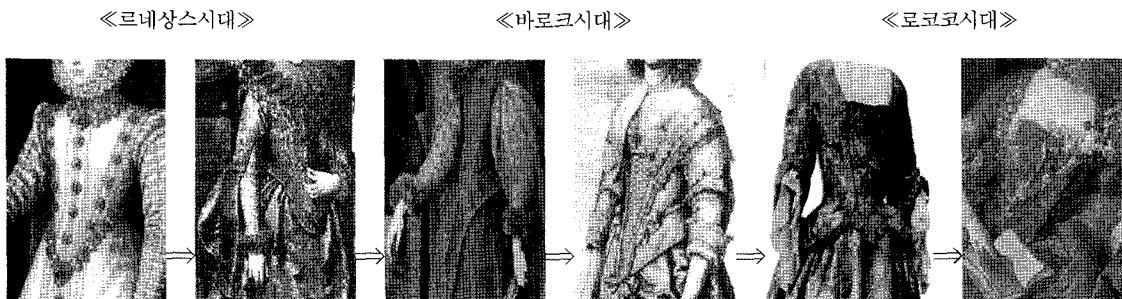
《르네상스시대》

《바ロック시대》

《로코코시대》



<그림 6> 소매의 변천과정



&lt;그림 7&gt; 스토마커의 변천과정

&lt;표 6&gt; 음양의 특성에 따른 장식분류

음·양의 특성	장식의 기법
음적 특성	레이스, 리본, 플라운스, 로젯, 러플, 개더, 프릴, 스캘럽, 드레이프, 아플리케, 자수, 스모킹, 앙가장뜨, 팔발라, 꽃 외
양적 특성	슬릿, 체인, 브레이드, 파이핑, 프린지, 드론워크, 탑 스티치, 베튼, 직선의 레이스, 보더(선)장식, 바인딩 외

여주거나 러플 등으로 장식하는 역삼각형의 형태로서 브레이드, 레이스, 자수, 보석, 퀼팅의 다양한 장식을 하였으며 후기로 갈수록 점점 끝이 더 뾰족한 예각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바로크시대 초기에는 네덜란드의 영향으로 예각의 뾰족한 스토마커가 허리선 아래로 내려와 혀 모양으로 길게 배를 덮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바디스보다 양질의 옷감을 사용하고 자수 장식을 하거나 끈으로 지그재그 되게 묶고 보석, 단추, 족제비 텔, 레이스 등으로 다양하게 장식하였으며 후기로 갈수록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형태로 변화하였다(Lester & Oerke, 2004). 로코코시대에는 에쉘 스토마카가 크게 유행되면서 끝부분이 약간 둥글려진 사다리꼴 형태로 변화되었다. 대부분이 다양한 색 실로 화려하게 자수되어졌는데 꽃, 잎사귀, 줄기 등 식물모티브로 이루어졌다(Hart & North, 1998). 또한 리본으로 입체감을 구성하여 기하학적으로 배열해 장식하였다. <그림 7>은 스토마커의 변천과정이다.

### 3. 음·양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의복이미지와 장식의 연관성

복식은 그 시대의 조형적 특성과 의복이미지에 의해서 독특한 양식으로 창출된다. 본 장에서는 음·양의 조형적 특성을 근거로 의복이미지를 살펴보고 시대별 장식을 음적 장식과 양적 장식으로 분류하였다. 밝고 유연한 느낌의 여성적인 이미지는 음적 장식으로 어둡고 강렬한 느낌의 남성적인 이미지는 양적 장

식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자 한다(표 6).

#### I) 르네상스시대

근세시대의 음·양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의복이미지와 장식을 살펴보면 르네상스시대의 실루엣은 박력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하여 패드를 진뜩 넣어 구조물과 같이 견고하고 딱딱하게 보이는 실루엣으로 양적특성을 나타낸다. 재질은 강한 대비효과를 주어 짠 편직물이나 두껍고 광택 있는 재질을 선호하였으므로 양적 특성이다. 색상은 어둡고 강렬한 색상과 검정색이 압도적으로 유행하였다(신상옥, 1990). 그래서 양적 특성을 나타낸다. 문양은 큰 무늬와 스트라이프 문양을 선호하였으므로 양적 특성이다. 따라서 르네상스시대는 남성적인 느낌의 양적 특성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표 7).

장식을 살펴보면 에漯랫은 두껍고 투박한 재질의 사용으로 힘이 있고 권위적인 느낌을 주므로 양적특성을 가지고 있다. 슬래쉬는 날카로운 각의 특성으로 딱딱함을 느끼게 함으로 양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보석·단추는 빛이 나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재질의 특징과 여러 개씩 겹쳐서 착용하는 반복성 등으로 양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거들장식은 보석이나 체인의 느낌에서 오는 딱딱함과 길게 늘어뜨려 착용한 형태가 권위적인 느낌을 주므로 양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러프는 곡선을 반복해서 사용하였지만 강하고 끊어지지 않는 느낌과 풀을 베여 딱딱한 재질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양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으로 보아 양적

&lt;표 7&gt; 르네상스 의복의 음·양 분류

요소	특성	음·양
실루엣	과장되게 표현된 딱딱한 실루엣	양
재 질	두껍고 광택 있는 재질 (벨벳, 테피터, 편직물, 등)	양
색상	어둡고 강렬한 색상(어두운 단색성을 띠는 색상, 검정색 선호)	양
문양	큰 무늬, 스트라이프	양

&lt;표 8&gt; 르네상스 장식의 음·양 분류

장식	특성	음·양
에뿔렛	힘 있고 권위적인 느낌	양
거들장식	보석이나 체인 사용 길게 늘어뜨린 형태	양
단추, 보석	빛남, 차가움, 단단한 재질	양
러프	곡선을 반복해서 사용 풀 먹인 딱딱한 재질감	양
슬래쉬	날카로운 각	양

&lt;표 9&gt; 바로크 의복의 음·양 분류

조형요소	특성	음·양
실루엣	초기 : 직선적 스타일에서 후기 : 곡선적 스타일로 변화	양·음
재 질	두껍고 뻣뻣한 재질과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의 병행	양·음
색상	초기 : 어둡고 강렬한 색의 대비 후기 : 밝고 화사한 색상도 사용	양·음
문양	스트라이프, 수탉 그림 과일 문양, 넝쿨 문양	양·음

장식이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표 8).

## 2) 바로크시대

바로크시대의 실루엣은 구조물과 같이 견고하고 딱딱해 보이는 실루엣에서 점차 부드럽운 형태의 곡선적인 실루엣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양적·음적 특성이 같이 공유하였다. 재질은 견직물과 모직물의 다양한 발전으로 두껍고 뻣뻣한 재질과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양적·음적 특성이 함께 나타났다. 색상은 여러 가지 색상을 골고루 섞어서 배색된 것을 즐겼으며 어두운 색을 주조 색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점차 밝고 화사한 색상으로 변화되었으므로 양적·음적 특성이 함께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문양은 꽃, 넝쿨, 과일, 수탉그림 등이 다양하게 도안되어 색상에서 오는 장중함을 부드럽고 화사하게 구성하여 주었으므로 음적·양적 특성이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바로크시대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음적·양적 특성이 골고루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표 9).

장식을 살펴보면 루프는 여러 가지 색상을 섞어서 부드러운 재질로 만든 곡선형태의 다발묶음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므로 음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태슬은 실이나 루프를 꼬아서 만든 직선적인 형태이므로 양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프린지는 가늘고

&lt;표 10&gt; 바로크 장식의 음·양 분류

장식	특성	음·양
루프	부드러운 재질로 만든 곡선적 형태의 다발	음
태슬	실이나 루프를 꼬아서 만든 직선적인 형태	양
프린지	가늘고 부드러운 느낌, 복합적인 형태	음·양
보더장식	직선형태, 브레이드나 폭이 넓은 천으로 가두리 장식을 하거나 스트라이프 무늬의 효과	양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재질, 복합성의 특성으로 음적·양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보더장식은 스트라이프 효과를 주며 직선형태로서 딱딱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양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바로크의 대표적인 장식으로 들 수 있는데 음적·양적 특성이 모두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표 10).

## 3) 로코코시대

로코코시대의 실루엣은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곡선적인 실루엣으로 음적 특성이다. 재질은 부드럽고 얇은 재질인 실크나 코튼 등으로 화려하게 구성하여 날아갈 듯이 보였으므로 음적 특성을 나타낸다. 색상도 얇은색의 파스텔 톤을 선호하였으며(백영자, 유효순, 2003) 부드러운 뉘앙스가 넘치는 배색을 하였으므로 음적 특성이다. 직물 문양 또한 담쟁이, 인동, 나팔꽃류 등의 유동적인 느낌을 주는 식물 모양이 부드럽고 섬세하게 표현되어 더욱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으므로 음적 특성이다. 이러한 이미지로 로코코시대는 음적 특성이 강한 것을 엿볼 수 있다(표 11).

장식을 살펴보면 앙가장뜨나 팔발라는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의 곡선적 형태로 이루어져 우아함과 여성적인 느낌을 주므로 음적 특성을 나타낸다. 새시벨트는 대부분이 부드러운 소재의 리본형태로서 여성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음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

&lt;표 11&gt; 로코코 의복의 음·양 분류

조형요소	특 성	음·양
실루엣	곡선적 실루엣 여성적 이미지	음
재 질	부드럽고 얇은 직물 (실크, 코튼, 쉬폰, 머슬린 등)	음
색 상	파스텔 톤의 얇은 색 선호 (장미색, 녹색, 푸른색 계통)	음
문 양	식물 문양(꽃 모양, 인동 냉굴, 잎, 줄기)	음

다. 직물목걸이 역시 꽃이나 레이스 등의 소재로 만들어 우아하고 여성적인 느낌을 강하게 심어주므로 음적특성이라 볼 수 있다. 로제은 화사한 꽃의 정겨움으로 더욱 여성적인 느낌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음적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도 프릴, 러플, 플라운스 등은 로코코곡선을 대표하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이시대를 대표하는 장식들이다. 이러한 이미지로 로코코시대는 음적 특성이 강한 장식이 사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표 12).

#### IV. 결 롬

근세시대 여성복식에 나타난 장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시대별 특징적인 장식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장식의 형태 변화와 음양에 따른 의복이미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르네상스시대는 체인, 보석·단추, 에펠텅, 거들 장식이, 바로크시대는 루프, 태슬, 프린지, 보더 장식, 텁 장식이, 로코코시대에는 팔랄라, 새시벨트, 꽃, 직물 목걸이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3세기에 걸친 구조적 장식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네크라인은 러프에 의해 목둘레를 감싸던 형태가 낮아지면서 목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네꼴테 네크라인으로 나타났으며, 라펠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소매의 형태는 어깨부분을 강조하고 손목부위가 좁은 긴소매의 형태가 어깨부분의 과장이 감소하면서 짧은 길이로 변화되었다. 스토마커는 역삼각형의 끝이 길고 뾰족한 형태로 시작하여 길이가 점차 길어지면서 끝부분이 길게 드리워진 혀 모양으로 변화되었다가 18세기에는 길이는 짧아지고 아래 부분이 약간 둥글려진 사다리꼴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셋째, 구조물과 같은 딱딱한 실루엣, 두껍고 거칠며 광택 있는 재질, 어둡고 강렬한 색상, 스트라이프

&lt;표 12&gt; 로코코 장식의 음·양 분류

장식	특 성	음·양
앙가장뜨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 곡선적 형태	음
팔랄라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 곡선적 형태	음
로제	장미꽃 형태	음
새시벨트	부드러운 소재, 리본형태 두꺼운 모직물	음
직물 목걸이	꽃, 레이스 등의 소재	음

장식 등의 조합에 의해 양적특성을 나타내는 르네상스복식에는 딱딱하고 힘 있고 차가운 느낌의 체인, 보석, 에펠텅 등 양적 장식이 많이 나타났다. 르네상스와 비슷한 조형요소에 의한 양적 특성과 과도한 장식의 활용으로 음과 양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바로크 시대는 음양의 장식이 함께 나타났다. 곡선적인 실루엣, 가볍고 부드러운 직물, 파스텔 톤의 색상, 꽃문양 등의 조합으로 환상적이고 여성적인 음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로코코시대에는 꽃, 팔랄라, 새시벨트 등의 음적 장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과거의 장식사용 현상을 현재와 비교해 볼 때 과거의 장식은 당시 의복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적합한 종류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노-매치 믹스(no-match Mix), 절충주의 등으로 의복의 전체적인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장식들을 사용하거나 다양한 장식이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패션코디네이션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김민수. (1997).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서울: 솔.
- 김봉준. (1995). 쉽게 푼 역학 신비한 동양철학 2. 서울: 삼한 출판사.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2). *encyber*. 자료검색일 2006, 7. 25, 자료출처 <http://www.encyber.com/kodic/slist.php?searchBy=title&key=장식>
- 라사라교육개발원. (2002). 패션용어사전. 서울: 라사라패션 정보.
- 박샛별. (1999).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성희. (2003). 현대 복고패션에 표현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영자, 유효순. (2003). 서양의 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 불프 메리. (1981). 패션 양숙희 옮김. (1995). 서울: 경춘사.

- 빈 막스. (1985). *패션의 역사 2*. 이재원 옮김 (1998). 서울: 한길아트.
- 성수광, 김정원, 김정숙, 김수자, 박명애. (1999). *패션 디자인학의 이해*. 서울: 고문사.
- 손세호. (1999). *서양문화의 역사 III*. 서울: 소나무.
- 신상옥. (1990). *서양 복식사*. 서울: 수학사.
- 유송우. (1995). *복식 의장학: 복식디자인의 이론과 실제*. 서울: 수학사.
- 윤 희. (2004). 음양오행사상과 사계절 컬러론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스타일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순홍. (2003).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의상 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1), 20~46.
- 이은영. (2003). *복식 디자인론*. 서울: 교문사.
- 이정미. (2000). 음양오행의 상징적 표현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옥, 최영옥, 최영순. (2000).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 블랙 앤더슨, 갈란트 매취. (1980). *세계 패션사: 윤길순 옮김* (2005). 서울: 간디서원.
- 정인희, 이은영. (1992). 의복 이미지의 계층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4), 529~538.
- 정홍숙. (2005).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조진애, 손희정, 이혜진. (2001). *서양복식의 역사*. 서울: 경춘사.
- 조진애. (2002). 그림에서 표현된 근세서양복식. 서울: 경춘사.
- 차하준. (1984). *르네상스 사회와 사상*. 서울: 탐구당.
- 카이저 수잔. (1985). *복식사회 심리학*. 김순심 옮김 (1995). 서울: 경춘사.
- 흔 메릴린, 구렐 루이스. (1981).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옮김 (1995). 서울: 까치.
- Bigelow, M. S. (1970). *Fashion in history*. Minnesota: Burgess Publishing.
- Cosgrave, B. (2000). *Costume & Fashion*. New York: Check mark books.
- Forsythe, S. M., Drake, M. F., & Hogan, J. H. (1981). Influence of Clothing Attributes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Characteristics, for Middle Management Position. *ACPTC Combined Proceedings* (pp. 112~113). In Solomon, M. R. (1985).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Lexington Books.
- Hart, A. & North, S. (1998). *Fashion in Detail*. New York: Rizzoli.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Lester, L. M. & Oerke, B. V. (2004). *Accessories of dress*. Mineola,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 Mcjimsey, H. T. (1973).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Norris, H. (1999). *Medieval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Dover Publishing.
- Rasband, J. (2002) *Wardrobe strategies for wome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Inc.